

기술혁신 시스템 강화해 지식기반경제로 대전환

영국

2003년 영국 과학기술정책의 화두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한 기술혁신시스템의 경쟁력 강화'이다. 영국 정부는 1998년 12월에 무역산업부를 통해 발표한 <지식기반경제 수립>이라는 제목의 경쟁력백서에서 21세기를 맞는 영국 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둘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가 '지식'과 '혁신'을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2대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국가 운영기조 및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2003년에도 영국 정부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성공적인 이행 추구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부문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정부는 과학·공학·기술(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SET)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SET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1997년의 노동당 집권 이후 정부의 모든 지출구조와 내용에 대한 포괄적 지출검토가 진행되던 1998~1999 회계년도에만 감소했을 뿐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부터 줄곧 감소하기만 하던 실질가격 기준 SET 투자규모가 마침내 1997년을 저점으로 해서 U자형의 상승 추세로 반전되기에 이르렀다(아래 <표> 참조).

“과학·공학·기술 분야, 세계 정상 유지 목표”

특히 무역산업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영국 SET 분야의 세계 정상 수준 유지”라는 목적에만 사용되는 과학예산의 경우 2002년까지 연평균 7%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며, 영국 정부는 이같은 추세를 한층 가속화함으로써 2003~2004 회계년도부터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연평균 10%씩 예산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연구활동의 생산성

<표> 영국정부의 SET 투자 추이

회계년도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과학예산	1355.2	1405.2	1446.2	1420.0	1400.6	1364.2	1393.6	1552	1679	1746	1924
HEFC	1128.2	1168.4	1136.5	1111.7	1086.5	1110.0	1157.1	1286	1316	1318	1322
기타 민수부처	1386.0	1282.7	1639.1	1563.1	1424.8	1404.2	1501.7	1586	770	1767	1844
민수부문 합계	3869.4	3856.2	4221.9	4094.8	3911.8	3878.4	4052.4	4425	4766	4831	5090
국방부문	2654.5	2333.9	2311.4	2319.4	2431.9	2144.0	2344.5	1998	2296	2237	2183
SET 합계	6524.0	6190.2	6533.2	6414.1	6343.7	6022.4	6396.9	6423	7061	7069	7273
EU 기여분	327.3	328.9	378.5	387.0	357.2	383.5	335.4	435	423	370	340
정부 SET 투자 총계	6851.2	6519.2	6911.7	6801.1	6700.9	6405.9	6732.3	6858	7484	7439	7612

(단위: 백만 파운드, 1999-2000 실질가격 기준)

주: 2000-2001년은 추정치, 2001-2002, 2002-2003, 2003-2004년은 계획치.

자료: OST(2001), Forward Look 2001.

항상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시스템에 대한 구조조정 및 평가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말에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된 데 이어 2000년과 2001년에는 7개의 Research Council에 대한 5년주기 평가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02년부터는 과학기술자문기구인 과학기술회의에 대한 5년주기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평가를 통해 새로운 조직구조 모색을 권고 받은 1개 Research Council을 제외한 나머지 6개 Research Council들과 과학기술회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행 중인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 2차 평가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2001년 12월에는 각 부처 과학자문관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최대한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규정이 작성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도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 80년대 이후 처음

셋째, 영국 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Genomics, E-Science, 기반기술의 3개 분야에 대해 장기적이고 범부처적인 대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족시키고, 2001~2002 회계년도부터 예산을 배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서, 이들 프로그램들이 향후 어떤 성과를 거둘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3~2004 회계년도부터는 줄기세포, 지속가능한 에너지경제, 지역경제 및 토지사용 등의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넷째, 영국 정부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비전, 추진전략, 정책수단 및 우선순위 등을 명확

하게 담은 보고서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과학기술계에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

21세기의 개막 전야인 2000년 6월에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정책의 3대 정책목표로 ①영국 과학기술의 탁월성 유지 및 증진 ②기술혁신의 촉진 ③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제시한 과학기술백서 <탁월성과 기회: 21세기를 향한 과학혁신정책>이 발간된 데 이어, 2001년 8월에는 무역산업부가 주관하는 모든 형태의 과학기술혁신활동에 대해 세부목표별로 각각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수단, 우선순위 및 주요 프로그램별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 <과학기술혁신전략>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2년 7월에는 무역산업부, 재무부, 교육기능부의 3개 부처 공동으로 대학연구, 숙련, 기술이전,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모색한 <혁신에의 투자: 과학·공학·기술전략>이 발간되었다. 이들 일련의 정책문서들은 영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청사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㉞

글 김기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북아협력팀 부연구위원

영국의 의학연구협회가 줄기세포은행 설립을 발표하자, BBC의 방송관계자가 런던 인간배아세포연구소를 방문하여 취재하고 있다.

